



Original Article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장순양^{1*}, 이우호², 이호정², 이해리², 나현욱², 윤예진²

¹대구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대구대학교 간호대학 학생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in Nursing Students

Soon Yang Jang^{1*}, Woo Ho Lee², Ho Jeong Lee², Hae Ri Lee², Hyeon Uk Na², Ye Jin Yun²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aegu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²Under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Daegu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Soon Yang Jang, jsny0212@daegu.ac.kr

Abstracts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among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A total of 117 third-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D City were includ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3 to 25, 2024.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version 30.0. **Resul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tructured extracurricular program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Furthermore,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ing turnover rates among newly graduated nurses.

Keywords: Career Choice, Clinical Clerkship,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주요어: 진로 선택, 임상실습, 간호대학생, 만족도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최근 의료현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1].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통해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며, 환자의 주요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필수 인력으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2]. 그러나 2024년 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 [3]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주요 사직 원인은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 타 병원 이동 등이었으며, 이직하는 간호사의 80.6%가 경력 5년 미만이었고, 이 중 1년 미만 신규간호사가 4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신규간호사의 조기 이직 현상은 의료현장에서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확대되었으나, 임상실습 기

관 부족으로 인해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을 연계한 체계적인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4,5].

특히 신규간호사의 조기 이직은 단순히 근무환경 요인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명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6,7]. 이에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간호 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진로결정의 명확성과 진로적합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업, 임상실습, 진로 선택 등의 발달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설정하게 된다[8,9]. 임상실습교육은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이론교육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기술을 실제 임상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해 보는 중요한 학습 과정으로[10], 앞으로 근무할 임상현장을 사전에 경험하고 간호조직 문화를 관찰하게 함으로써[11]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진로와 전공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12].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병행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타 전공 학생에 비해 학업 부담이 많고, 임상실습 과정에서 모호한 학생간호사 역할, 낮은 임상 환경에 대한 긴장감, 환자 간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3]. 이러한 교육환경은 대학생활 적응, 진로탐색, 졸업 후 간호전문직으로서 간호실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 경험과 임상실습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미래 진로에 대한 확신과 결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2]. 특히 간호대학생은 충분한 진로탐색 없이 성적이나 높은 취업률, 가족의 권유 등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15], 이는 졸업 후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16]. 그러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체계적인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졸업 후 간호사로서 직무 역할과 실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로지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17].

진로결정수준은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진로에 대해 갖는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며[18,19], 대학생 시기에 확립해야 할 핵심 발달 과업으로 졸업 후 직업적응, 직무만족, 경력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20].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수행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향상되므로[21]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준비를 위해서는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12].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이 현재 선택한 전공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 만족 상태로 개인의 학업 태도, 학업 의지,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22].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수준이 향상되며[12], 학업 성취, 진로 준비 행동, 대학생활 적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23,24]. 반면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전공 불일치 경험, 간호전문직관 형성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수행한 실습 경험을 통해 느끼는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7],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의 역할, 직무 특성, 환자 간호의 실제를 경험하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며[10], 임상실습 경험은 간호전문직관과 직무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2,14].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전공몰입이 높으며, 진로탐색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17]. 반면 임상실습 과정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이나 과도한 역할 부담, 실습 부적응 등을 경험한 학생은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정체감 형성, 임상수행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상실습교육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20,27,28], 자기효능감[29-31],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13], 전공 만족도[12,29,32-34]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상호 연结된 경험으로 진로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방안과 임상실습교육 및 학사지도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수준,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D광역시 A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 .90,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30으로 설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109명의 표본이 요구되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20명의 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충분한 응답을 한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1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전공만족도

본 연구는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Ha [35]가 개발하고 Lee [36]가 수정·보완한 총 18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의 Likert 척도로 하부영역은 일반만족 6문항, 사회적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Ha [3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Lee [3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 진로결정수준

본 연구는 Osipow 등[37]이 개발하여 Koh [38]가 번안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진로 결정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2문항, 진로미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3~18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하 18점에서 최고 90점이며, 측정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oh [3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측정은 Cho와 Kang [39]이 개발한 도구를 Lee 등[40]이 수정·보완한 총 31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실습 교과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6번과 9번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Lee 등[4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4학년 재학생에게 구글폼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내용,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에 대상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24년 09월 03일부터 2024년 09월 25일까지 23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SNS 단체 채팅방과 간호학과 게시판을 통해 배부하여 총 12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 내용이 중복된 3부를 제외한 11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3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온라인 설문 첫 페이지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비밀 보장 등에 관한 설명문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충분히 설명문을 읽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연구 종료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한 뒤 영구 폐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명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4.07 ± 0.56 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평균은 사회적 인식 만족이 4.38 ± 0.58 점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만족 4.06 ± 0.71 점, 교수-학생 관계 만족 3.78 ± 0.72 점, 교과 만족 3.77 ± 0.71 점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3.51 ± 0.77 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 평균은 진로 결정 확신 3.67 ± 0.88 점, 진로 결정 미결정이 3.49 ± 0.8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3.62 ± 0.55 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 평균은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85 ± 0.60 점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3.84 ± 0.71 점,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3.72 ± 0.69 점,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3.69 ± 0.88 점,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3.66 ± 0.90 점,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3.05 ± 0.63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N=117)

Variables	M \pm SD	Min	Max
Major satisfaction	4.07 ± 0.56	2.22	5.00
General satisfaction	4.06 ± 0.71	1.83	5.00
Satisfaction with social perception	4.38 ± 0.58	2.50	5.00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3.77 ± 0.71	1.33	5.00
Satisfaction with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3.78 ± 0.72	2.00	5.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62 ± 0.55	2.10	4.87
Satisfaction with clinical course	3.84 ± 0.71	2.14	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content	3.05 ± 0.63	2.00	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instruction	3.72 ± 0.69	2.00	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environment	3.85 ± 0.60	1.00	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hours	3.66 ± 0.90	1.67	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evaluation	3.69 ± 0.88	1.00	4.33
Career decision-making level	3.51 ± 0.77	1.78	5.00
Certainty of career decision	3.67 ± 0.88	1.50	5.00
Career indecision	3.49 ± 0.82	1.63	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3명(11.1%), 여자가 104명(88.9%)이었으며, 연령은 21세 이하가 46명(39.3%), 22세 이상이 71명(60.7%) 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83명(70.9%), 4학년이 34명(29.1%) 이었다. 주 실습기관은 중복답안 하도록 했으며 대학병원 115명(98.3%), 종합병원 43명(36.8%), 여성전문병원 52명(44.4%), 정신건강센터 14명(12.0%), 지역보건소 24명(20.5%), 요양병원 1명(0.9%) 이었다. 진학 동기는 외부 요인 84명(71.8%), 내부 요인 33명(28.2%)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진학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t=3.62, p=.002$), 진학 동기의 경우 외적 요인이 내적 요인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2.20, p=.030$). 임상실습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44, p=.016$). 진로결정수준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22세 이상이 21세 이하보다 유의하게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며($t=-2.90, p=.004$), 학년의 경우 4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다($t=-1.98, p=.050$), (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mong Nursing Studen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ajor satisfaction level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level	
			M \pm SD	t(p)	M \pm SD	t(p)	M \pm SD	t(p)
Gender	Male	13(11.1)	4.42 \pm 0.33	3.62 (.002)	3.97 \pm 0.47	2.44 (.016)	3.70 \pm 0.62	0.91 (.364)
	Female	104(88.9)	4.03 \pm 0.57		3.58 \pm 0.54		3.49 \pm 0.79	
Age(year)	≤ 21	46(39.3)	4.02 \pm 0.55	-0.83 (.406)	3.63 \pm 0.57	0.06 (.950)	3.26 \pm 0.75	-2.90 (.004)
	≥ 22	71(60.7)	4.11 \pm 0.56		3.62 \pm 0.53		3.67 \pm 0.75	
Grade	3rd	83(70.9)	4.06 \pm 0.56	-0.34 (.736)	3.64 \pm 0.54	0.68 (.501)	3.42 \pm 0.77	-1.98 (.050)
	4th	34(29.1)	4.10 \pm 0.56		3.57 \pm 0.57		3.73 \pm 0.74	
Motivation of admission	External factor	84(71.8)	4.23 \pm 0.42	2.20 (.030)	3.67 \pm 0.48	0.63 (.533)	3.72 \pm 0.67	1.81 (.074)
	Internal factor	33(28.2)	4.01 \pm 0.59		3.60 \pm 0.57		3.43 \pm 0.80	

M=mean; SD=standard deviation

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진로결정수준과 전공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48, p<.001$),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4, p<.001$). 또한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3, p<.013$),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in Nursing Students (N=117)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level
Major satisfaction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64(<.001)	1	
Career decision-making level	.48(<.001)	.23(.013)	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효율적인 진로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4.0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인식 만족’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고 취업률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교과 만족’은 3.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과중한 학업량과 타이트한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이 요구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3.62점이었으나, 하위 영역 중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3.0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실습환경 3.85점이나 실습교과 3.84점에 비해 실제 학생이 경험하는 실습 내용이 관찰 위주이거나 단순 업무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즉, 학생들은 쾌적한 병원 환경보다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콘텐츠 부족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관찰 위주의 실습을 지향하고 시뮬레이션 교육과 연계하거나 프리셉터와의 1:1 지도를 강화하는 등 실습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Song 등[7]의 연구결과, 여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Park과 Shin [1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직이 여성 직업이라는 기준의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높은 취업률, 남자 간호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남성의 간호직 진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1].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4학년과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는데, 이는 졸업과 취업이 임박함에 따라 현실적인 진로 준비 행동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Song 등[7]의 연구와 Lee 등[16]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고, Kim [34]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로결정을 해야 할 4학년뿐만 아니라 신입생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사지도가 필요하다[17]. 진학 동기에서 취업, 타인의 권유 등의 외적 요인이 내적 요인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 속에서 간호학과의 높은 취업률이라는 외적 보상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형성에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7,28].

본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대한 경험과 임상실습 경험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학습 경험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임상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임상실습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돋고, 만족스러운 임상실습 경험은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강화함으로써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과도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교생활과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이 보다 명확해진다고 제시한 Park과 Shin [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감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진로 확신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명료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전공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긍정적인 임상실습 경험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의 실제 역할과 직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돋고, 이를 통해 진로결정 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7],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 관련 교육 중재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하다[17,29]. 또한 임상실습 경험은 단기적인 진로결정보다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같은 장기적 발달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의 '양적 경험'보다는 실제로 수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질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교육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5].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부 과정에서의 전공 교육과 임상실습 경험은 졸업 이후 간호 인력의 직무 지속성과 경력 안정성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강화하고, 이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연계하는 교육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남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임상실습의 하위 영역 중 '실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는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만족도를 관리하고 진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둘째, 임상실습만족도의 하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습 내용'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임상실습 교육 과정 개편 및 실습 지침 마련에 있어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긍정적임을 확인하여 변화하는 간호 인력 구조 내에서 남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상대적으로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은 여학생 집단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가 D광역시 소재의 1개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순 관찰을 넘어 간호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실습 매뉴얼 개발과 임상현장과의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저학년 및 여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진로결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학년 시기부터 전공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여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멘토링 및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교과과정 내에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임상 실습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Note

This manuscript was revised for presentation at the 2024 Academic Symposium of the College of Nursing, Daegu University.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Funding

None.

Authors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Lee WH; Formal analysis: Na HU, Lee HR; Writing-original draft: Lee HJ; Writing-review & editing: Yun YJ.
All work was done by Jang SY

References

1. Griffiths P, Saville C, Ball JE, Jones J, Monks T. Beyond ratios-flexible and resilient nurse staffing options to deliver cost-effective hospital care and address staff shortages: A simulation and economic modelling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21;117:103901. <https://doi.org/10.1016/j.ijnurstu.2021.103901>
2. Chen SC, Lai YH, Tsay SL. Nursing perspectives on the impacts of COVID-19.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20;28(3):e85. <https://doi.org/10.1097/jnr.0000000000000389>
3. Hospital Nurses Association (HNA).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2024 [Internet]. HAN; c2025 [cited 2025 Oct 5]. Available from: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bo_table=board1&sca=&sop=and&sfl=wr_subject&stx=%EC%8B%A4%ED%83%9C%EC%A1%B0%EC%82%AC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Internet]. KABONE; c2024 [cited 2025 Oct 5].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reference/refRoom.do>

5. Yang KH, Choi EJ, Park SO, Ko SH, Choi GY, Park JD, et al. Policy support and flexible operation plan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0;4(2):37–51. <https://doi.org/10.34089/jknr.2020.4.2.37>
6. Choi J, Park YM, Ha YO, Kweon YR, Song JH, Kim MK, Kim D.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drop out.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1;19(1):117–127. <https://doi.org/10.22678/JIC.2021.19.1.117>
7. Song CE, Kim MR, Kim S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Wellness*. 2020;15(1):287–298. <https://doi.org/10.21097/ksw.2020.02.15.1.287>
8. Kim CK.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Seoul: Dongmoonsa; 2001. 23-28 p.
9. Porfeli EJ, Lee B, Vondracek FW, Weigold IK.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2011;34(5):853–871.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1.02.001>
10. Noh Y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5):461-470.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5.461>
11. Lee JL. The influence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Kore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19;3(3):61–73. <https://doi.org/10.34089/jknr.2019.3.3.61>
12. Park SA, Shin KS. Effect of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3;24(2):592–601. <https://doi.org/10.5762/KAIS.2023.24.2.592>
13. Kim YJ.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how they cope with academic stress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2023;8(3):31–35. <https://doi.org/10.31152/JB.2023.06.8.3.31>
14. Jung YI.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alling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15):117–127.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5.117>
15. Jeong KS. The influence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on nursing student's grit. 2022;23(12):303–311. <https://doi.org/10.5762/KAIS.2022.23.12.303>
16. Lee JW, Lee NY, Eo YS.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1):311–320.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11>
17. Cho EJ. Chang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undertaking individual career pla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20;31(1):85–96. <https://doi.org/10.7465/jkdi.2020.31.1.85>
18. Kim SJ, Kim JG. An influence of the level of the course determination by major satisfaction of the department of security relation students. *Journal of Korean Sport Research*. 2007;18(5):53–63.
19. Kim SO.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2):210–219.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210>
20. Lee HR. The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Daegu University; 2020. 123 p.
21. Hwang HJ, Paek JY. Effects of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2015;24(1):99-122.
22. Kim MH, Ju DB.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24;38(3):29–49. <https://doi.org/10.18398/kjlgas.2024.38.3.29>
23. Do YS. Effect of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2024;2(6):229–239. <https://doi.org/10.52902/kjsc.2024.26.229>
24. Song JM, Yoo D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 learning immer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ccording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8;27(3):209–222. <https://doi.org/10.35159/kjss.2018.06.27.2.209>
25. Oh JH, Kim JS.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1;5(4):45–55. <https://doi.org/10.34089/jknr.2021.5.4.45>

26. Yang KM.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2):445–453.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45>
27. Whiston SC, Keller BK.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04;32(4):493–568. <https://doi.org/10.1177/0011000004265660>
28. Choi HJ, Jung KI.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24(1):61–72.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1.61>
29. Im MS, Lee SM.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s, self-efficacy, and motives for major selec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0;11(5):71–84. <https://doi.org/10.22143/HSS21.11.5.6>
30. Park DY.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decision-making pattern in career and attitude in settling caree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0;19(4):319–331.
31. Liaw SY, Wu LT, Lopez V, Chow YL, Lim S, Holroyd E, et al.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an instrument to compare career choice influences and perceptions of nursing among healthcare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2017;17(1):1–11. <https://doi.org/10.1186/s12909-017-0910-7>
32. Komarraju M, Swanson J, Nadler D. Increased career self-efficacy predicts college students' motivation, and course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4;22(3):420–432. <https://doi.org/10.1177/1069072713498484>
33.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34. Kim SO.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2):210–219.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210>
35. Ha HS. A study on college students' department (undergraduate)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87 p.
36. Lee DJ.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4. 59 p.
37. Osipow SH, Carney CG, Winer J, Yanico BY, Koschier M.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ision).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76. 1-28 p.
38. Koh HJ.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3. 131 p.
39. Cho KJ, Kang HS.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84;14(2):63–74.
40. Lee SH, Kim SY, Kim JA, Lee YS.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41. Song MS, Park YR, Wee H. Male nurses' images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cience*. 2015;38:37–67.